

제 목	국 문	경기도 학동기아동의 심장질환에 대한 단면적 조사연구		
	영 문	A Cross-sectional Study on the Heart Diseases of School-Chidren in Kyong-gi Provinc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천병철, 김순덕, 염용태, 윤배중*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경기도 보건과*		
	영 문	Byung-Chul Chun, Soon Duck Kim, Yong Tae Yum, Bae Jung Yoon*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 Dept. of health. service, Kyong-gi Province*</i>		
분 야	역학	발 표 자	천병철(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O)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학동기 아동들의 심장질환은 단순 심전도의 이상에서부터 심각한 선천성 심장기형까지 다양하며, 병발하는 합병증이나 돌연사는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까지 제한시키는 질병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집단검진을 통한 학동기 아동들의 심장질환의 현황과 특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규모 집단검진사업을 바탕으로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의 종류와 각 질환별 유병률 파악, 지역적 빈도와 분포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심장질환관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경기도의 전체 16개군(郡)지역과 10개시(과천, 군포, 동두천, 미금, 송탄, 시흥, 오산, 의왕, 평택, 하남)지역의 전체 국민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심장질환검진을 실시하였다. 1차검진은 각 국민학교에서 심음-심전도 자동해석기와 일반의의 검진으로 수행하였고, 이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다시 소아과 전문의의 진찰과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감별진단이나 확진이 필요한 학생은 지정 종합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모두 검진기록과 의무기록을 다시 확인하여 재 분류하였고, 이를 각 변수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p>				

3. 연구결과 (보완중)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개년간 경기도 대상지역의 전체 검진인원 수는 166,501명이었고(전체 대상자의 90%), 1차 검진 유소견자는 2,631명(1.58%)이었다. 이들 중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2,361명이었고, 3차 검진까지 받은 아동은 441명이었다. 2차와 3차 검진을 통해서 진단된 전체 심장질환 환아는 721명으로 전체 학생 1,000명당 4.4명 정도였다. 전체 심장 질환 중 선천성 심장질환이 282명 발견되었고, 심전도 및 기타 이상이 439명이었다. 검사 누락자와 각 검사의 양성률을 고려하여 전체 학동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유병률을 추산하면 1,000명당 2.5명 정도였다.

심전도 이상은 심실기외수축이 가장 많았고(26%), 완전우각차단, WPW 증후군 등의 순서로 많았고, 선천성 심장기형은 심실중격결손증, 심방중격결손증, 폐동맥협착, 삼첨판기능부전 등의 순서였다.

4. 고찰

일본의 경우 학동기 돌연사의 원인 중 73%가 심장질환 때문이고, 전체 청소년의 사망중 돌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정도 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73년 학교건강법령에 의해서 심장검진이 의무화 되어 있어서 학교 심장검진방식과 심장질환 환자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홍창의(1984) 등이 시행한 2만명 정도의 심장검진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학동기 아동들의 심장질환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심장질환의 특성상 심전도 이상을 제외하면 각각의 심장질환의 유병상태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검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유병률을 추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동기 아동들의 심장질환의 유병상태와 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모자보건적인 관점에서 아동들의 건강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